

## 카렌-코리안-아메리칸: 미국의 난민 수용 제도와 미얀마 카렌족 난민의 삼각 초국주의 실천\*

이 상 국\*\*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난민 수용 제도와 미얀마 카렌족 난민의 삼각 초국주의 실천을 다룬다. 미국은 계산된 친절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체계 아래에서 엔지오가 국가를 대리하여 난민들의 적응 과정에 개입한다. 난민들은 경제적 자립과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주체 만들기 작업에 압박을 받지만 공동체와 기억에 바탕을 둔 초국적 관계를 통해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간다. 본국과 거주국, 한국(인)까지 포함된 삼각의 초국적 관계가 난민들에게 정서의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인종질서를 헤쳐나가는 데 출구를 제공한다. 한국계가 마련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자-소수자 연대는 기존 질서의 틈을 파고들며 확장해내는 공생의 영역이다. 본 연구는 카렌족이 그 공생의 영역에서 난민촌, 한국, 미국이 연계된 초국적 생활세계를 구축하며 미국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경로의 통합을 추구해나가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미국 난민 수용 제도, Volag, 엔지오, 초국주의,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195).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caskl@yonsei.ac.kr

## I. 서론

내가 태국 국경 소재 맬라(Mae La)난민촌에서 엘루노<sup>1)</sup>를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3월 4일, 그녀가 여덟 살 때였다. 그때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 그 아이가 나에게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엘루노의 할아버지 이동근은 일본에 징집되어 미얀마(버마) 전선에서 싸우다 카렌주 정글로 도망쳤는데, 전쟁이 끝났어도 정글에서 숨어지내다 엘루노의 할머니를 만나 엘루노의 엄마(클로포) 등 자녀 아홉을 슬하에 두었다. 엘루노의 할아버지는 1976년 12월에 카렌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클로포는 남편을 만나 엘루노 등 자녀 넷을 두었는데, 미얀마 정부군과 카렌군 사이의 무력충돌로 남편을 잃고 네 자녀를 데리고 피난처를 찾아 옮겨다니다 1997년에 맬라난민촌에 들어왔다.

맬라난민촌에서 엘루노 가족은 ‘한국인 후손’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무렵 한국인 선교사가 난민 지원활동을 하게 되고, 그 선교사의 안내로 치과봉사단 등 한국인이 정기적으로 그 난민촌을 방문하면서 엘루노 가족을 각별하게 돌봤다. 나를 비롯해 몇몇은 한국에 있는 엘루노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도 했다. 찾은 한국인의 방문과 돌봄은 엘루노 가족의 한국인됨을 강화했고 클로포는 ‘Lee’라는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sup>2)</sup>

내가 맬라난민촌을 다시 방문한 2005년 2월 7일에도 엘루노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열세 살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그 무렵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의 여러 국가가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미얀마 난민을 자국으로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엘루

1) 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경우에는 실명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명을 쓴다.

2) 동남아 문화에서는 성씨 사용법이 비교적 자유롭다.

노 가족도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 200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재정착했다. 2011년 2월 엘루노와 한국에 있는 나는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엘루노는 한국에 오고 싶다면 DNA 테스트까지 받아서 자신이 한국의 할아버지 가족과 혈연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2020년 3월 나는 엘루노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시 만났다. 15년 만에 직접 얼굴을 본 것이다. 그 사이 엘루노는 아이 셋(2015년생, 2017년생, 2019년생)을 둔 엄마가 되어 있었고, 군부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스시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다. 엘루노와 나 사이의 화제는 여전히 할아버지였다. 이때도 DNA 테스트 얘기를 다시 꺼내며 엘루노 엄마 역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한국인됨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엘루노 가족은 미국에 재정착된 뒤에도 난민촌 시절에 맺었던 한국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특히 엘루노 가족을 각별하게 돌보았던 한국인 기독교인은 미국을 주기적으로 찾아 그 가족을 비롯해 곳곳에 흩어진 재정착 카렌족과 그들의 교회를 방문했다. 엘루노 가족은 미국에 살면서 땀라난민촌에 남은 할머니와 이모 가족과 유대관계를 이어나가면서도 한국인과의 관계도 이어나갔다. 이들의 초국적 유대는 기존의 초국주의 논의(예 Basch et al. 1994)가 주로 다루었던 출신지와 거주지 사이만이 아니라 한국도 포함되는 일종의 삼각 초국주의 유대인 셈이다.

엘루노가 한 가족의 차원에서 한국과 감정적 초국주의 유대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카렌족은 공동체와 교육의 차원에서 한국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4년에 세인트폴에 한국어 몰입교육을 위해 자율형 공립학교(charter)<sup>3)</sup> 형식으로 설립한

3) 자율형 공립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대안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 체계는 공립과 사립, 자율형 공립학교로 구성

세종아카데미(Sejong Academy)에 입학한 학생 중 다수가 카렌족 자녀였다.<sup>4)</sup> 주류 공립학교에 가면 주눅이 들 것을 염려한 카렌족 학부모와 아동에게 비주류가 세운 세종아카데미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이미 한국은 난민촌 시절부터 낯설지 않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점 역시 매력으로 다가왔다. 2018년 5월과 2019년 5월에 각각 11명, 22명으로 구성된 세종아카데미 카렌족 학생단은 한국을 찾아 재한 카렌족 공동체 가정에 열흘간 머물며 동족과 교류했고 주요 교육 기관과 문화시설을 방문하며 한국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머무는 동안 미국 카렌족 학생과 한국 카렌족 학생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도 했다. 세종아카데미와 한국은 양국 거주 카렌족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준 셈이었다.

엘루노와 세종아카데미 사례는 미국 거주 재정착 난민을 다룬 기존의 논의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면을 제시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을 다룬 기존 논의는 미국은 최대 재정착 난민 수용국으로서 최대한 이른 경제적 자립에 목적을 두고 엔지오를 대리로 삼아 난민들의 통합을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주로 다루었다(예 Darrow 2018). 재정착 난민의 삶에 관한 기존 논의는 재정착 난민들이 미국의 기존 인종질서에 들어가 비주류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주로 조명했다(예 Bose 2016). 미국의 교회 등 지역사회가 난민들의 통합에서 하는 역할을 조명하는 기존 연구도 있지만(예 Nawyn 2010), 주로 백인 주류 집단을 살펴보고, 비주류 집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난민들의 초국주의를 다룬 기존 연구는 주로 거주국과 출신국 사이의 유대관계에만 집중했다(예 Myers and Nelson 2019). 본 연구는 미얀마 카렌족 사례를 통해 미국에 재정착한 난민

---

되어 있다.

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검색일: 2022.03.15) 및 <https://www.sejongacademy.org/>(검색일: 2022.03.15).

이 미국 정부의 정책과 미국 사회의 인종관계가 구축한 질서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본국, 거주지, 한국이 연계된 초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그 질서의 안팎을 드나드는 생활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단속적으로 수행된 종단연구이다. 2000년에 땔라난민촌에 3개월 머물면서 엘루노와 그 가족을 알게 되었고, 2005년에 간헐적 땔라난민촌 방문을 통해 그 가족과 만남을 이어나갔으며, 2011년에 땔라난민촌에서 엘루노의 친척과 면담했고, 미국에 재정착한 엘루노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연구에 주요 정보제공원으로 등장하는 소블라(1979년생, 남), 케이포(1989년생, 여) 역시 2000년과 2005년에 땔라난민촌과 매솟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2018년 5월과 2019년 5월에는 한국에 방문한 미네소타 세종아카데미 카렌족 학생과 만나기도 했다. 2020년 1월부터 1년간 미국에 머무는 동안, 2월과 3월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엘루노 가정과 소블라 가정 등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참여관찰과 비공식적 면담을 수행했고, 9월과 10월에는 조지아주,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카렌족 난민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간(inter-state) 이동 통제로 방문면담과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많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국에서 케이포 등 난민들과 SNS나 줌으로 면담을 수행했다. 2022년에는 카렌족과 관계를 맺어온 한국인들과 면담을 수행했다.

내가 수행한 종단연구의 특성은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개인의 인생 역정과 난민에서 선진국 거주민으로 변화한 공동체의 역정을 추적하면서 한국(인)이 그 역정 속에 깊게 관여된 것을 드러낸다는 점과 연구자 자신도 그 관여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가 함께 시공간을 옮겨가며 써 내려간 서사

극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I. 친절한 미국? 미국 난민 수용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기억과 소수자 간 연대에 바탕을 둔 초국주의

미국은 1980년 난민법 통과 이래 2022년까지 310만 명이 넘는 재정착 난민을 수용했다(US Government 2022: 10).<sup>5)</sup> 미국은 재정착 난민 최대 수용국으로서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 재정착된 난민 1,156,478명 중 688,030명이, 즉 거의 60%의 재정착 난민이 미국에 수용됐다.<sup>6)</sup> 트럼프 정부 시기(2017년 1월-2021년 1월), 국내 안보의 이유로 난민 수용을 대폭 축소했지만(Bernstein and DuBois 2018),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난민 수용 규모를 늘리며 지도력을 회복하고 있다.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 미국의 난민 정책을 액면 그대로 인도주의 정책이라고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켈레스(Keles 2008)에 의하면 미국의 난민 정책은 계산된 친절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2차대전을 전후하여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극하며 냉전 시기 난민 수용을 공산권에 대응하는 외교 수단으로 활용했다. 인도주의 정책이 세계 지배 전략과 결부되며 추진되어 온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후반 베트남 전쟁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면서 난민법을 제정하며 오늘날과 같은 난민 재정착 제도를 정규화했다. 냉전 이후에도 난민 수용 문제는 세계 경영 전략과 맞물려 있다. 미국 연방정부(국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바

5) 이와 별도로 미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한 인원(asylee)은 같은 기간 70만 명가량이다.

6) <https://rsq.unhcr.org/>(검색일: 2022.04.05).

에 따라 해마다 ‘난민 수용 제안’(Proposed Refugee Admissio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해당 연도의 난민 수용 규모와 정착 관련 정책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세계 지역별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이 외교적 관심을 기울일 대상 국가와 난민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수용하는 난민 범주는 ‘우선대상(Priority) 1’(P-1), ‘우선대상(Priority) 2’(P-2), ‘우선대상(Priority) 3’(P-3)으로 구분되는데, P-1은 개별 난민 사례로서 주로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대상을, P-2는 집단 난민 사례로서 세계 정세상 미국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서 재정착시켜야 할 대상을, P-3은 가족 결함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개별 난민 대상을 일컫는다.<sup>7)</sup> P-2 범주가 바로 미국 인도주의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이 맞물리는 고리이고, 미얀마 카렌족도 2000년대 중반 이후 P-2로 지정되어 집단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US Government 각호).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북유럽 국가나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와 달리 미국은 국가(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세하게 난민들의 수용과 적응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대신 국가는 기본 정책 기조만 갖고서 엔지오(Voluntary Agency, Volag)가 실질적으로 난민 수용과 정착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민관협력 체계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Van Selm 2003). 그 협력에서 국가가 예산권을 갖고 있기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엔지오는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조속한 난민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국가의 정책 목표를 대리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나는 이러한 미국의 재정착 난민 정책을 신자유주의 주체 만들기 작업이라고 보는 대로우(Darrow 2018)의 주장에 동의한다. 거버넌스 효율 또는 민관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엔지오가 국가의 목표, 즉 난민

---

7) 2022년도부터는 정착 지원을 책임지는 개인들이 후원하여 들어오는 P-4범주가 도입됐다(US Government 2022: 12-16).

을 하루라도 빨리 자립시키려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난민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만들어버린다. 엘루노는 청소년기에 들어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소블라 등 성인으로 들어온 카렌 난민들 대부분 적응 초기에 당장 일자리를 찾으라는 압박을 받고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에서 시급제 비정규직으로 한동안 종사했다. 난민들은 능력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당장 노동시장에서 낮은 단계의 일자리로 떠밀리었다. 엔지오는 그렇게라도 난민들을 취업시켜야 국가와 재계약할 수 있고 국가의 예산을 받아 엔지오 그 자체도 연명하고 사업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엔지오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다. 트럼프 정부 시기처럼 난민 수용 규모 축소로 예산이 줄어들면 엔지오의 연명도 어려워지고 결국 전달체계와 난민 지원 산업 자체가 마비가 되어 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Greenberg et al. 2018: 38; Mathema and Carratala 2020: 9-10). 결국 엔지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민관협력 난민 레짐의 필수 성분이 되어 버렸다.

켈레스(Keles 2008)가 언급하듯이, 신자유주의 미국의 난민 정책은 미국 특유의 ‘캔두이즘’(candoism)과 결합하여 난민들을 앞으로만 내몬다. 난민들에게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경제적 자립도 이뤄내고 자신의 운명도 새롭게 만들어나가라고 압력을 가한다. 난민들의 과거 직업과 기술과 정체성은 활용되기는커녕 부정적인 것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들 과거의 기억을 삭제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간을 주조해내려고 한다.

그러나 토시치와 팔름버거(Tošić and Palmberger 2016: 1)와 크리트(Creet 2011: 9-10)가 말하듯이 이주/이동은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 기억은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자아를 재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미국으로 재정착했다고 하여 난민촌 시절을 잊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런 기억도 즐거웠던 기억도 미국에서 새롭게 자신을 빚어나가는데에 의미를 부여한다. 나아가 그러한 기억들은 초국적 사회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Tošić and Palmberger 2016: 2). 난민들은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뒤돌아보며 현재의 자신의 정체성과 초국적 연대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의 기억과 이주 연구에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기억과 제삼자와의 초국적 연대에 관한 것이다. 카렌족 난민의 난민촌 시절 기억 속에 외부인, 이 연구에 관하자면, 한국인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이 단순히 카렌족으로서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외부인(한국인)과 연대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엘루뇨가 2011년에 난민촌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에게 메신저로 연락하며 DNA 테스트까지 꺼내며 한국인 됨을 증명하고 싶어 한 것, 케이포 역시 난민촌 시절 한국인과 함께 라면과 김치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과거의 기억이 오늘날의 본국과 거주국을 넘어서고 카렌족 당사자 차원을 넘어서서 초국적 사회관계를 만들고 확장해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억은 언어, 음식, 사물 등으로부터 연상 자극을 받는다(Sarkar 2019). 카렌족은 자기소개를 할 때 늘 ‘한국인’이 아니냐는 질문과 마주한다. 영단어인 ‘Karen’이 ‘Korean’으로 들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 카렌으로서 한국인과 구분짓기 시도를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한국인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카렌족의 언어화된 자기 존재 증명에서 이미 한국인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 식료품점 역시 연상 기억 장치 역할을 한다.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 자우너(2022)가 돌아가신 엄마를 추억하며 H마트에서

반쪽의 한국인됨을 찾으려 했듯이, 엘루노와 케이포, 소블라 역시 그곳에서 한국인과 교류했던 과거를 추억한다. 미셸 자우너에게 그곳이 한국과 미국이 만나는 곳이라면, 카렌족들에게는 난민촌과 미국과 한국이 만나는 곳이다.

기억과 초국적 연대에 대한 논의는 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와 질서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난민들은 정책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민관협력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인종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Bose 2018). 오미와 위난트(Omi and Winant 2014)가 언급하듯이 미국 사회는 인종 코드의 세팅에 따라 정체성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위계질서에 따라 사회는 여러 다른 영역으로 분절되고, 난민 등 이주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주류와 통합되지만 문화적으로는 출신지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분절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과정을 거친다(Li 2010; Portes and Zhou 1993). 즉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기존 이주민 공동체가 살아가는 영역을 중심으로 동화과정이 일어난다. 인종질서가 거주 공간에도 영향을 끼쳐 이주민들은 종족집결지를 형성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세계를 구축한다(Frazier 2016). 그렇다고 난민들이 지역사회 선주민들과 관계를 아예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난민들은 선주민 사회에 다양성을 증진하고,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겪는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Bernstein and DuBois 2018; Bose 2016: 238; 2018). 교회를 비롯해 지역사회 선주민 공동체와 이들 사이의 연대가 발전하기도 한다. 엔지오가 신자유주의 난민 정책의 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서 난민 인권과 문화 증진 옹호 활동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Nawyn 2010). 그러나 기존 논의가 밝히듯, 결국 인종에 따른 위계질서를 넘어서기가 불가능하다. 이 연구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되 카렌 난민들에게 출구가 있음을 드러내며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 그 출구는 바로 비

주류와 연대하며 발전시켜나가는 생활세계와 초국적 연대라는 점을 이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네소타 세종아카데미 사례가 바로 난민이 주류인 백인이 아니라 비주류인 한인과 관계를 맺으며 교육 공간을 확보해나가고 초국적 연대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카렌족이 한국인과 맺는 이러한 초국적 연대는 기존 초국주의 논의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1990년대 이래 학자들(예 Basch et al. 1994; Levitt and Schiller 2004; Vertovec 1999)은 두 국가나 그 이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서적·문화적·물질적 유대를 초국주의라고 정의하며 그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왔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연구는 본국과 거주국 사이에만 초점을 맞추어왔지, 그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초국주의는 다루지 않았다. 카렌족 난민에 관한 연구 역시 재정착된 국가와 난민촌 사이 연계만을 다루고 있어 그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Myers and Nelson 2019; Suter 2021). 여러 장소를 오가는 초국주의 논의가 있긴 하지만 주로 카렌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오가는 논의에 그쳤다(이상국 2021). 이 연구는 제삼의 행위자를 끌어들이며 초국주의가 이루어지는 장을 넓히고자 한다. 일종의 삼각 초국주의는 난민촌(본국) 시절에 이루어진 연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거주국에 살면서 기억은 그러한 연대를 되살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예컨대 교육의 현장에서 삼각 초국주의 원리가 실천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는 계산된 친절의 원리로 운영되는 미국의 난민 수용 정책에 의해 들어온 카렌족 난민들이 민관협력 체제 아래에서 이른 경제적 자립과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주체 만들기 작업의 압박을 받고 또 인종관계의 질서에 영향을 받으며 불평등하고 취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기억과 연대에 바탕을 둔, 제삼자가 개입된 초국주의에 힘입어 자기 존재를 구성해나가고 생활세계를 확장해나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Ⅲ. 미얀마 카렌족 난민의 수용과 초기 정착

1980년부터 정규화된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에 관여하는 주요 정부 기관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 인구·난민·이주국(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PRM),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재정착난민국(The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이다. 세 기관 중, 국무부의 PRM은 재정착 대상 난민 선정 절차를 조정하고 초기 3개월간의 정착 과정에 관여하며, 국토안보부의 USCIS는 재정착 대상자의 서류 심사와 면담 시행, 수용에 대해 결정을 하며, 보건복지부의 ORR은 미국 도착 이후의 적응과 통합 과정에 관여한다(US Government 2022).

정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엔지오를 파트너로 삼아 일을 진행한다. PRM은 엔지오에 예산을 지원하여 전 세계에 걸쳐서 7개의 재정착 지원 센터(Resettlement Support Center, RSC<sup>8)</sup>)를 운영하는데, RSC가 재정착 희망자들의 지원 서류를 받아 본국의 USCIS에 서류를 제출하고, 재정착 대상으로 결정된 자들에게 건강검진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와 문화이해교육(Cultural Orientation)을 진행하고, 본국의 정착 지원 엔지오(Volag)와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출국 준비를 갖추게 하여 대상자들을 여행에 동행하는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IOM)에 인도한다. 2021년 기준으로 PRM 예산을 받아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히브리어민지원협회(Hebrew Immigrant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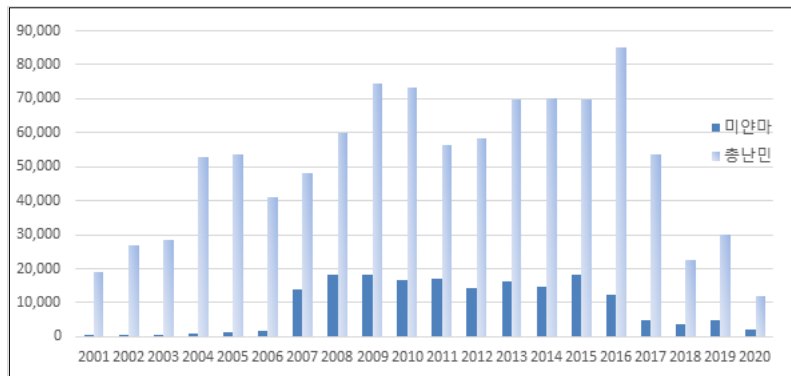
8) 2011년까지 이 기관은 ‘해외 수속 기구’(Overseas Processing Entity)라고 불렀다(US Government 2012: 7).

Society, HIAS), 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 CWS), 국제가톨릭이주위원회(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 ICMC)가 각각 태국(아시아 담당),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 담당), 케냐(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담당), 터키(레바논 담당)에서, IOM이 엘살바도르(라틴아메리카 담당), 요르단(중동 담당), 우크라이나(중앙아시아 담당)에서 RSC를 운영한다(US Government 2022: 21). 엘루노 가족 등 태국 난민촌에 거주하던 카렌족 난민의 경우 태국 매솿의 IRC 지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그곳에서 5일가량의 문화이해교육을 받았다. 이처럼 IRC 등 엔지오는 태국을 비롯한 세계 거점에서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대리 수행하고 있다.

미얀마 카렌족 난민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0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 그 이전에도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난민이 개별적으로 유엔난민기구에 비호신청을 하여 P-1 범주로 인정을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규모가 미미했다. 하지만 2006년에 미국 정부가 미얀마 난민을 전략적 수용 대상자인 P-2로 지정하자 <표 1>에서 보듯이 그 이듬해부터 눈부시게 증가했다(US Government 2006: 9). 2006년에 1,612명에서 2007년에 13,896명으로 거의 9배가량 증가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1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사실 미국은 미얀마 카렌족 난민에게 P-2 지정을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었으나 9·11테러 이후에 안보를 이유로 무장 세력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자들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왔는데, 카렌족의 대표 정치기구인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 KNU)과 연관된 난민들이 그에 해당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협의하여 그 조건이 카렌족 난민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특별 관심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미국의 안보와 타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2007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US Government 2007: 23). P-2 지정 이후에 미국 정부는 카렌족 난민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부시 대통령은 2008년 8월 6-7일 태국 방문 중에 방콕에서 미얀마 정치활동가와 면담을 했고, 영부인 로라 부시는 8월 7일 맬라난민촌을 방문하여 카렌족 난민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설명했다.<sup>9)</sup> 특히 로라 부시의 맬라난민촌 방문은 난민들에게 미국 정부의 현현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표 1> 2001-2020년 미국 입국 미얀마 난민 및 총난민 규모<sup>10)</sup>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얀마	543	128	203	1,056	1,447	1,612	13,896	18,139	18,202	16,693
총난민	68,925	26,785	28,286	52,840	53,738	41,094	48,218	60,107	74,602	73,293
비중	2.9%	0.5%	0.7%	2.0%	2.7%	3.9%	28.8%	30.2%	24.4%	22.8%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9) <https://2001-2009.state.gov/r/pa/ei/pix/b/prm/108175.htm>(검색일: 2022.04.10) 및 <https://www.nytimes.com/2008/08/08/world/asia/08myanmar.html>(검색일: 2022.04.10).  
 10) 해당 연도는 미국 회계년(10월 1일-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연도를 언급할 때 난민 규모 등 정부의 통계 자료를 다룰 때는 회계년을 뜻한다. 미국은 출신국 난민을 종족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카렌족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착 난민 등을 포함한 미국 거주 카렌족 총인구는 2019년 8월의 보도에 따르면 약 215,000명으로 추산한다. <https://www.mprnews.org/story/2019/08/13/lured-by-jobs-and-housing-karen-refugees-spread-across-minnesota>(검색일: 2022.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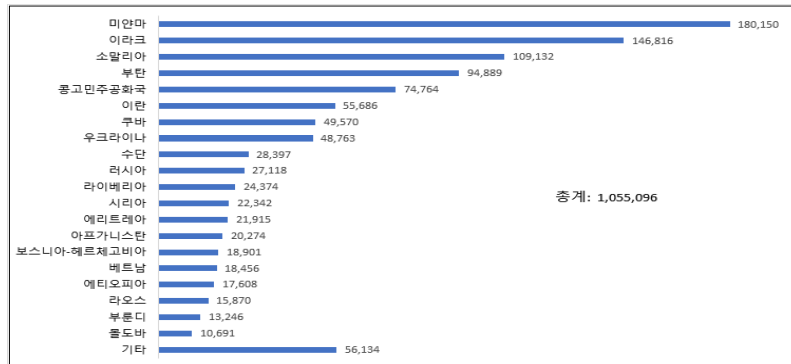
미얀마	16,970	14,159	16,295	14,578	18,323	12,294	5,047	3,525	4,928	2,112
총난민	56,384	58,179	69,909	69,975	69,920	84,989	53,691	22,405	29,916	11,840
비중	30.1%	24.3%	23.3%	20.8%	26.2%	14.5%	9.4%	15.7%	16.5%	17.8%
<b>총계(2001-2020)</b>										
미얀마	180,150									
총난민	1,055,096									
비중	17.9%									

<출처: 국무부 통계 자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미얀마 난민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1-2020년에 걸쳐 총 1,055,096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표 1>에서 보듯이 2016년에 난민 수용 규모가 최대 8만 5천 명가량에 이르렀으나 2020년에는 1만 명대로 축소되기도 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01-2020년에 미얀마 난민 입국자는 180,150명으로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라크 난민 146,816명, 소말리아 난민 109,132명, 부탄 난민 94,889명이 잇고 있다. 그 시기 미얀마 난민이 전체 난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에 이른다.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2009년 1월-2017년 1월)에서 아시아 중시 외교 정책 아래에서 미얀마 난민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갔으며, 이른바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기(2011-2020년)에서도 재정착 난민 수용은 지속됐다. 트럼프 정부시기에 총난민 입국자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미얀마 난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됐다.

도착 즉시 영종도의 난민지원센터로 입소하여 6개월 정도 합숙하며 적응 과정을 거치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 들어오는 재정착 난민들은 바로 지역사회로 들어간다. Volag이 미리 국무부와 각 주의 재정착 담당 기구와 협의를 하고 RSC로부터 넘겨받은 난민들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착할 지역을 선정한다(Singer and Wilson

<그림 1> 2001-2020년 출신국별 난민 규모(단위: 명)



<출처: 국무부 통계 자료>

2006; Van Selm 2003: 163). 이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해결이 중요한 요소에 포함된다. 자동차 산업의 사양 지대인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에 난민 유입이 새로운 활력이 되기도 했다(Bose 2016: 238). 정착 지역도 확대되어 2000년 이후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관문 도시(Gate City) 중심으로 정착이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중소도시까지 난민이 유입되었다(Bose 2018: 322). 엘루노 가족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한 것도 그러한 난민 유입 추세에 따른 것이었다.<sup>11)</sup> 앞서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이 세계 경영 전략과 맞물린다고 했는데, 국내 차원에서도 역시 국가의 인구와 경제 정책과 맞물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도착 후 90일 동안 국무부 PRM은 초기 정착을 돕는 ‘수용 및 배치’(Reception and Placement, R&P) 프로그램을 Volag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민관협력 체계에서 국가는 배경으로만 등장하고 엔지오가 난민과 대면하여 정착에 개입한다. 2021년 기준으로 그 프

11) 노스캐롤라이나는 1990년대까지 미국 내 유입 비중이 1%에 이르지 못했으나 엘루노가 들어올 무렵 2.37%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거의 4%에 이르고 있다(국무부 통계 자료).



로그래를 운영하는 Volag은 CWS, IRC, HIAS, 성공회이민사역부(Episcopal Migration Ministries, EMM), 에티오피아공동체개발위원회(Ethiopian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ECDC), 루터교이민난민서비스(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s, LIRS), 미국난민이민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USCRI), 미국가톨릭주교회의(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세계구호선교회(World Relief, WR) 등 총 9개의 엔지오이다. 이 중 CWS, IRC, HIAS는 앞에서 보았듯이 RSC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착 신청부터 초기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엔지오의 이름에서 보듯이 기독교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종족을 지원하던 엔지오가 전국 단위의 규모로 성장한 예도 있다. 이 9개의 Volag이 전국에 292개에 지부를 두고 운영을 하며, 산하 지부가 없으면 지역 엔지오와 제휴를 맺기도 한다.<sup>12)</sup>

국무부가 R&P 프로그램에 책정하여 Volag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난민 개인당 2,275달러이다. Volag은 이 중 1,225달러를 난민이 정착하는 데에 직접비로, 가령 집세 지불 등에 쓰고, 나머지 1,050달러는 행정 비용으로 활용한다. 그 예산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도에 그 전해에 비해 두 배 늘어 1,800달러에 이른 후 꾸준히 조금씩 올라 현재의 수준에 이르렀다(US Government 각호). 하지만 엔지오로서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정부의 지원금이 부족하여 자체 모금액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브라운과 스크리브너(Brown and Scribner 2014: 111)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엔지오 운영하는 데에 39%만 차지한다고 한다.

도착 후 90일이 지나면 보건복지부의 재정착난민국(ORR)이 난민

---

12) Volag 목록과 전국 지부에 관한 자료는 <https://www.wrapsnet.org/rp-agency-contacts/> (검색일: 2022.04.13) 참고.

들의 정착 과정에 관여한다. ORR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동반 자녀를 둔 저소득 난민에게 5년에 한하여 지원을 하는 ‘빈곤가족임 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TANF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난민들에게 8개월에 한하여 지원하는 ‘난민현금지원’(Refugee Cash Assistance, RCA), 장애 저소득 난민에게 7년에 한하여 지원하는 ‘보조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운영한다.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국민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수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8개월에 한하여 지원하는 ‘난민의료지원’(Refugee Medical Assistance, RMA)을 운영한다. ORR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난민을 수용하는 주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한다. ORR은 또한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일종의 종합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난민지원서비스’(Refugee Support Services)를 역시 해당 주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해당 주는 이 예산을 받아 5년 동안 재량껏 운영할 수 있다.

민관협력 차원에서 ORR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은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난민들의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ORR이 지원하는 2달러당 Volag은 자체로 1달러를 매칭하여 운영한다. 예컨대 ORR이 난민 개인당 최대 지원액인 2,600달러를 지원하면 Volag은 1,300달러를 매칭하여 총 3,900달러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하는 난민들은 도착 후 31일 이내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 여기서 경제적 자립이란 TANF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수준의 가구 소득을 달성하는 것이다. Volag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례 지원, 기술 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 지원과 관련된 사안에 그 예산을 쓴다. 또한 그 예산을

주거, 교통, 보건, 영어교육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ORR 2018; US Government 각호).

국무부 PRM으로부터 R&P 명목으로 받는 2,275달러와 ORR로부터 매칭 그랜트 명목으로 받는 3,900달러를 더하면 Volag은 적어도 난민당 6,175달러의 예산을 갖는다. 대로우(Darrow 2018)가 말한 ‘비자유 행정계약(administrative indentureship)’은 이런 조건에서 비롯된다. Volag은 그 예산으로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취업시켜 경제적 자립을 달성시키려고 프로그램 대상자인 난민의 능력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몰아붙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분고분 Volag의 지도를 따르는 대상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원액 축소는 일종의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 난민으로서의 일상의 생존이 Volag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비자유 행정계약을 조종하는 근본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ORR은 해마다 Volag이 그러한 예산을 받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즉 난민 취업률과 경제적 자립률을 어느 정도 이뤘는지 측정하여 Volag을 관리해나간다(ORR 각호). 2008년에 뉴저지에 도착한 소블라는 신자유주의 민관협력 난민 레짐이 주조한 비자유 행정계약 조건 아래 자립 달성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1시간에 7달러 40센터를 받으며 하루에 8시간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닭을 튀겨야 했다. 켈레스(Keles 2008)가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국식 캔두리즘에 자신을 성급히 맞추며 앞으로만 전진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 IV. 공동체, 기억, 연계: 또 다른 경로의 적응과 자아 구성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블라에게 돌과구로 다가온 것은

바로 카렌족 공동체였다. 멜라난민촌의 신학교를 졸업한 소블라는 그 졸업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카렌족 침례총회 미국지부(Karen Baptist Conventional USA, KBCUSA) 활동을 하고, 또한 미국 카렌족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도 넓혀가며 미국 생활에 대한 노하우도 획득해나갔다. 카렌족 난민이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로(Greensboro)에까지 정착하게 되면서 카렌족 공동체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자 소블라는 KBCUSA의 추천을 받아 2010년에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 목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동족 공동체는 또한 소블라에게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마련 해주었다. 소블라의 아내 자무포는 2005년, 미국 정부가 P-2로 지정하여 대규모로 카렌족을 수용하기 전에 P-1 자격으로 방콕의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왔다. 자무포는 카렌족이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몰려들자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 그들의 정착을 돕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연합회 활동을 해나가던 중 소블라를 만나게 되었고, 2012년에 그린즈버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자녀 둘(2014년생 아들, 2018년생 딸)을 두었다. 자무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친자매가 운영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금요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주중에는 비교적 시간 사용이 자유로운 소블라가 주로 아이들을 돌봤다.

이렇게 소블라 가족은 동족 공동체와 친족의 도움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해도 생계를 유지해나갔고, 2016년에는 16만 달러 정도의 단독 주택도 모기지로 구입하기까지 했다.<sup>13)</sup> 30년 동안 매달 650달러 씩 갚아 나가야 하지만 미국에 들어온 지 8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 가족은 부부가 벌어들이는 현재

13) 신미국경제(New American Economy 2017)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난민의 자가 소유 비율은 57.5%라고 한다. 다른 이민자들의 경우 50.6%, 미국 태생인 자들의 경우 65.8%이다. 미얀마 출신 난민에 관한 연구(Kallick and Mathema 2016)에 의하면 10년 미만 거주자의 자의 경우 21%,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73%라고 한다.

의 수입<sup>14)</sup>으로 매달 2천불씩 나가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으나 의 료비가 제일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막내를 제 외하고 다른 가족은 아주 저렴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소블 라는 아파도 비싼 병원비를 걱정하여 가급적 집에서 견디곤 했다.<sup>15)</sup>

소블라와 자무포의 사례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난민들 은 2차, 3차 이주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소블라는 뉴저지에서 노스캐 롤라이나로, 자무포는 샌프란시스코,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로 추가 이주를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처음 도착한 자들의 2차 이주 가 두드러졌다. 엘루노 집에서 만난 다카포의 경우가 그러했다. 캘리 포니아의 주거비와 물가가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어 몇 개월 지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옮겨왔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의 거 주도 추가 이주의 주요 요인이었다. 그래서 하킨스(Harkins 2012)가 언급했듯이 카렌족이 다수 거주하는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이나 네브 라스카의 오마하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었다.

엘루노의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에 처음 도착한 후에 다른 주로 옮 기지 않고 그 주내에서 계속 거주했는데, 주거비와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가족들이 같이 그곳에 정착했고, 일자리도 그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엘루노의 경우, 엄마, 언니, 오빠 둘 등 가족 구성원 다섯 명 모두 노스캐롤라이나에 같이 정착했다. 엘루노는 고 등학교를 그곳에서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스 시집 운영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한 달에 2,500불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간호사 직업과 견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

14) 난민 가구의 중위 소득에 관한 연구(New American Economy 2017)에 의하면 2015 년 기준, 5년 미만 거주 가구의 경우 21,781달러, 5-15년 거주 가구의 경우 36,886달 러, 15-25년 거주 가구의 경우 51,113달러, 25년 이상 거주 가구의 경우 67,000달러 이다. 그 기준년도에 미국 평균 중위 소득은 53,000달러이다.

15) 정부의 보고서(US Government 2021, 20)에 의하면 2012-2016년에 도착한 18세 이 상 성인 난민 중 의료보험 가입률이 61%이고, 그중 절반이 메디케이드나 RMA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한 뒤 인근 군부대내 식당에서 프랜차이즈 스시집을 열게 되었다. 주도인 롤리(Raleigh)의 예술 공연장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던 오빠 등 다른 가족들도 이 사업에 동참해주어서 엘루뇨는 세 아이를 돌보면서도 매장 관리를 해나갈 수 있었다. 자녀 양육 역시 엄마와 언니의 도움을 자주 받을 수 있었기에 아이들을 굳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됐다.

소무(1979년생) 역시 가족이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한 사례다. 소무 가족이 사는 동네는 히스패닉, 흑인, 터키계 등 이주민 출신 50가구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카렌족 가구는 18가구로 다수를 차지했다. 카렌족들은 다른 인종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카렌족 가구 위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나갔다. 이것은 시엔키에비츠와 니콜스(Sienkiewicz and Nichols 2016)의 연구 결과, 즉 노스캐롤라이나의 난민출신 공동 주거단지에서 종족 사이 교류가 미미하다는 것과 일치한다. 소무의 동네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채플힐 캠퍼스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소무 부부처럼 그 대학교와 산하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카렌족이 많았다. 소무는 우버 택시 기사 일도 겸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손님은 주로 대학생이었고 특히 주말에 손님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그 대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돌리면서 손님이 뚝 끊어져 버려 소무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9월에 내가 소무의 자동차를 타고 장모가 사는 동네로 이동을 했을 때 앞 유리에 여전히 우버 표지는 붙어 있었다.

소무의 장모는 채플힐에 살다가 좀 더 집값과 땅값이 싼 인근 지역인 미베인(Mebane)으로 2015년에 이사를 했다. 소무의 장모는 10만 달러에 단독 주택과 그 주위 농장도 구입하여 난민촌 시절에 먹던 채소와 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카렌족 공동체에 나눠주었다. 외딴곳에 있었지만 채플힐에 사는 카렌족들이 자동차로 이 집에 자주 들러 주인이 없더라도 농장도 돌볼 겸 채소와 작물을 거두어가곤 했다.<sup>16)</sup>

이곳은 카렌족들에게 일종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곳의 땅값이 저렴하기에 카렌족 공동체는 교회를 설립할 목적으로 이 근처에 미리 땅을 사두기도 했다.

이렇듯 소블라, 엘루노, 소무의 사례를 보면 정착 초기에 미국의 신자유주의 민관협력 난민 레짐에 영향을 받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및 종족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을 해나가면서 적응을 해나감을 알 수 있다. 고전적인 용광로 이론(Gordon 1964)에서 기대하는 것과 달리 아메리칸으로 거듭나 주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레이저(Frazier 2016)가 언급하듯이 일종의 종족 집결지(ethnic enclave)를 형성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초기의 난민 레짐의 영향을 벗어났지만 소무가 사는 동네에서 보듯이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조짓는 인종질서(Omi and Winant 2014)에 영향을 받으며 백인 거주지보다는 이주민 거주지에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주민과 공존하되 섞이지 않고 동족 공동체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와 더불어 기억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자아구조의 경로와 다르게 카렌족 난민 자신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이주는 이들에게 난민촌 시절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도록 하며 그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도록 한다(Creet 2011; Tošić and Palmberger 2016). 특히 그들의 기억 속에 한국인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에 카렌족 난민을 돕기 시작한 강대홍 선교사의 안내로 한국인 봉사단이 90년대 초반부터 맬라난민촌을 방문하기 시작했다.<sup>17)</sup> 강대홍 선교사의 뒤를 이어 오영철 선교사<sup>18)</sup>와 김봉국 선교사<sup>19)</sup>의

16) 나도 그 집에서 감자를 한 아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17) 강대홍 선교사와 면담(2022년 6월 3일).

18) 나는 오영철 선교사의 안내로 1999년 12월에 맬라난민촌을 처음 방문했다. 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상국(2014)에 나와 있다.

19) 김봉국 선교사는 한때 매솟과 맬라난민촌 담당 선교사로서 내가 2004-2005년에 매솟에 머물며 현지조사할 때 도움을 주었다.

안내로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무렵까지 한국 치과봉사단이 거의 매년 설 연휴를 끼고 5일 정도 맬라난민촌<sup>20)</sup>을 방문했다. 노 사거뉴 투 사이먼(Naw Hsar Ka Nyaw Htoo Simon 2020: 52)<sup>21)</sup>의 회고를 보자.

한국인 봉사단이 도착했다. 그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해 한국어로, 우리는 카렌어로 얘기했지만,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놀았다. 같이 돌아다녔으며, 줄넘기도 같이 했고, 빈 통에 플라스틱공 넣기 놀이도 같이 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이든 여성분들은 김치와 김 등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예배했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는 선물교환도 했다. 그들이 떠날 때 우리는 늘 다음처럼 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들과 어울려 큰길까지 걸어갔다. 그들은 오갈 수 있지만 우리는 난민촌 밖을 나갈 수 없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끈으로 엮였고 시간이 멈추길 바랐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그들을 태운 차가 자취를 감춘 뒤 언제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 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위의 장면은 내가 참여관찰을 했던 2000년과 2005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장면이었다. 방문하는 동안 한국인과 난민들은 압축적인 관계를 맺었다. 한국인 봉사단 방문 기간은 마치 축제 때와 같았다. 평소 치과진료를 제때 받지 못했던 난민들은 이때를 기다려 진료를 받았다. 방문단 중 일부는 어린이들과 놀이를 했다. 식사 준비팀은

---

20) 맬라난민촌은 세 구역(Zone A, Zone B, Zone C)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Zone C'는 신학교가 위치하고 비중있는 난민 지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종의 특별구역으로서 태국 당국도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해주었다.

21) 그녀는 내가 맬라난민촌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맬라난민촌 신학교 사이먼(Simon) 교장의 딸이다.



난민들과 함께 김치 등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 이 기간에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난민 요리사도 등장했다. 밤에는 영화 상영을 했다. 케이포처럼 활달한 아이들은 밤에도 나를 비롯해 한국인들을 따라다니며 라면과 김치를 야식으로 같이 먹기도 했다. 한국인 봉사단이 떠나는 날 난민들은 무리를 지어 한국인들을 뒤따랐다. 한국인들은 차에 바로 오르지 못한 채 눈물을 지으며 난민들과 작별의 포옹을 했다. 난민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오르는 한국인을 배웅했다. 어떤 난민들은 차를 붙잡고 오열했다. 안타까움, 아쉬움 등 복잡한 상념에 잠긴 채 한국인 방문단은 난민촌을 떠나갔다.

해마다 한국인 봉사단 구성원은 바뀌었지만, 일부는 10년 이상 꾸준히 방문하기도 했다. 엘루노, 케이포 등 어린이들은 이때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이들이 오면 다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떠날 때 또 다시 눈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한국인의 방문은 난민촌 사람들의 집단기억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촌 시절에는 인터넷 사용 제약으로 SNS를 통한 관계맺기 시도가 어려웠지만, 미국 땅에서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찾으며 그때 그 시절을 되새긴다. 케이포는 미국에 도착한 뒤 한국인들과 함께 라면과 김치를 먹으며 배웠던 한국어 표현 “와 맛있다”를 기억해내며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나를 비롯해 한국인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케이포 등 카렌족들에게 미국에서 적응해나가는 것은 과거를 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작업이 아니라 난민촌 시절에 여러 제약으로 잊지 못했던 관계의 끈을 회복하여 과거와 오늘을 하나의 온전한 끈으로 엮는 작업이다.

한국과 연결된 자아 구성 작업은 엘루노 가족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난민촌 시절 엘루노의 가족에게 한국인의 주기적인 방문은 그 가족의 한국인 자손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민촌 신학교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한국의 한 교단<sup>22)</sup> 소속 박원규 장로는 90년대

22) 이 교단은 기성 개신교 교단과 정통성 시비로 마찰을 겪기도 했다.

중반부터 엘루뇨 가족을 각별히 생각하여 방문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후원했고, 또 직접 엘루뇨 할아버지의 한국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sup>23)</sup> 나 역시 2000년 4월 13일 엘루뇨의 엄마 클로포와 면담하여 서론에 소개한 아버지 이동근에 관한 얘기와 그의 한국인 가족의 연락처를 받아두기도 했다. 당시 클로포는 한국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나 그렇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클로포는 “나는 절반의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요. 한국인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줄까요?” 하며 나에게 물었다. 한국인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는 예상과 달리 순조롭지 않았다. 박원규 장로는 한국인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경기도 집까지 찾아갔으나 호의적인 반응을 받지 못했다. 나 역시도 한국인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사람과 연락하여 서울에서 만났으나 클로포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가족관계를 확증하지 못한 채 엘루뇨 가족은 미국으로 재정착한 것이고 2011년 엘루뇨가 나에게 SNS 메신저로 DNA 테스트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불쑥 꺼낸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 2020년에 내가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DNA 테스트 얘기를 꺼낸 것은 엘루뇨 가족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미국에서도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엘루뇨 가족이 미국에서 재구성하는 자아 정체성은 순수한 아메리칸이 아니라 카렌-코리안-아메리칸이라는 혼종적 정체성이다.

미국에 도착하여서 카렌족들은 일상에서 여러 계기에 한국과 맺은 인연을 재확인하게 된다. 먼저 그들은 자신을 주변 사람에게 카렌(Karen)이라고 소개할 때 코리안(Korean)이라고 오해하여 듣는 이들이 많다. ‘Karen’이라는 기표가 미끄러져 ‘Korean’이라는 기의에 닿을 내릴 때가 많은 것이다.<sup>24)</sup> 그들은 즉각 카렌이라며 자신의 종족정

23) 박원규 장로와 면담(2022년 5월 30일).

24) 이글은 라깡의 이론에 입각한 구조주의 언어분석이 목적이 아니기에 기본 아이디

체성을 교정하여 밝히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러한 기표와 기의의 미끄러짐 현상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민촌 시절에 한국인과 맺었던 관계를 떠올리는 자극제가 된다.

이들은 또한 한국계가 운영하는 아시아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마트에서는 이들이 원하는 채소나 조미료 등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엘루노도 캐리에 소재한 H마트를 자주 이용했다. 그 마트에서 김치, 김, 라면 등 난민촌 시절에 한국인이 즐겨 먹던 먹거리를 발견하고 구입하기도 한다. 나 역시 카렌족 가정을 방문할 때면 이곳에서 한국 과자와 김을 구입하여 선물했다. 이처럼 한국계 마트는 한국, 카렌, 미국이 연관된 삼각 초국주의를 매개하는 장의 역할을 했다. 이것은 미셸 자우너(2022)에게 다가왔던 H마트의 의미, 즉 미국 속에서 한국 정체성을 찾는 의미에서 더 나아간 차원이고 마찬가지로 음식 등을 매개로 본국과 거주지 사이에 일상에서 이뤄지는 초국주의를 다룬 논의(Sarkar 2019; Vertovec 2009)에서 더 나아간 차원이다.

엘루노 가족이 맬라난민촌을 떠나자 엘루노의 이모, 즉 클로포의 여동생 애애 가족이 미얀마 카렌주에서 옮겨와 그 집을 물려받고 살았다. 오영철 선교사, 박원규 장로 등은 그 난민촌을 방문할 때마다 애애 가족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sup>25)</sup> 엘루노 가족 역시 애애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가족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다. 애애 가족도 드디어 2019년 12월에 미국 뉴욕주에 재정착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애애 가족은 오영철 선교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동안의 관심을 감사를 표시하며 미국 생활 경험담을 나누었다.<sup>26)</sup> 엘루노 가족, 애애 가족, 오영철 선교사, 박원규

---

어만 차용한다.

25) 애애 가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영철(2020: 199-206) 참고.

장로는 이처럼 미국과 난민촌(태국)과 한국 사이에 작동되는 삼각 초국주의 관계망 속에서 물질, 정서, 돌봄, 정보를 교환했고, 실제로 애애 가족은 그 관계망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국에 재정착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미국 방문 역시 카렌족과 한국인의 초국적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원규 장로는 2015년 11월, 2017년 2월, 2018년 9월 등 여러 차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엘루노 가족, 소블라, 소무 등 난민촌 시절 인연을 맺었던 카렌족을 만나기도 했다. 오영철 선교사 역시 2007년과 2016년에 미국에 머물던 중 샌디에고와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카렌족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했다.<sup>26)</sup> 2020년에 내가 엘루노와 소블라 등 카렌족을 방문한 것 역시 초국적 연계를 강화하는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면 만남은 미국 내 흩어진 카렌족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나의 카렌족 방문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버지니아 등 여러 주의 주요 카렌족 인사 사이의 정보 교환과 안내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인과 카렌족이 맺는 초국적 연계는 미국 내 카렌족 공동체 사이의 연계도 강화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 V. 교육 영역에서 실천하는 삼각 연계: 미네소타 세종아카데미 사례

미네소타 세인트폴 소재 한국어 몰입 자율형 공립학교인 세종아카데미 사례는 기억을 넘어서 카렌족-한국-미국의 연계가 교육의 영

26) 오영철 선교사의 SNS에서 참고했다.

27) 오영철 선교사와 면담(2022년 5월 31일).

역에서 작동되고 있는 사례다. 세종아카데미는 당초에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입양아<sup>28)</sup>를 가르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준비하여 2014년에 개교했다. 막상 설립하자 그 입양아들은 거리상의 이유로 등록하기 어려웠고, 학교가 카렌족 다수 거주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카렌족 난민 아동들이 학생 다수가 됐다.<sup>29)</sup> 설립 당시 유치원(K)부터 6학년 과정까지 개설하여 총 63명이 입학했는데, 학생 구성을 보면 아시아계가 84%, 혼혈 8%, 백인 3%, 흑인 5% 등이며 카렌족 학생이 39명으로 62%를 차지했다. 세종아카데미는 사실상 카렌족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시작한 셈이다. 이로 인해 100% 한국어 몰입교육을 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카렌어 수업도 병행했다.<sup>30)</sup>

세종아카데미는 거의 매년 상급 학년 과정 하나씩 확대해나가 2021-22학년도에 이르면 Pre K부터 11학년 과정까지 과정을 제공하게 됐고, 2022-23학년도에는 12학년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과정이 추가적으로 개설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났으며 그중 아시아계의 비중이 설립 당시보다 더 늘어나 거의 90%에 육박했다. <표 2>에서 보듯이 2020-21학년도 기준 총 재학생 257명 중 아시아계가 226명에 이른다. 아시아계 중 소수의 한국계 입양아 및 한국계 이민 2세를 제외하고 아시아계 대부분은 카렌족이다.

---

28) 2014년 8월의 한 보도에 따르면 1만 명의 한국계 입양아가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https://www.tcdailyplanet.net/minnesota-s-first-korean-immersion-school-may-benefit-adoptees/>(검색일: 2022.06.10).

29)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카렌족은 1만 명이고, 그중 95%가 세인트폴에 거주한다고 한다. <https://web.archive.org/web/20200724063942/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minnesota/articles/2019-08-31/jobs-housing-lure-karen-refugees-to-spread-across-minnesota?context=amp>(검색일: 2022.06.10).

30) <https://m.yna.co.kr/amp/view/AKR20141008070700009>(검색일: 2022.06.15) 및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검색일: 2022.03.15).

<표 2> 미네소타 세종아카데미 인종(종족)별 학생수<sup>31)</sup>

학년도	인종(종족)				합계
	아시아계	백인	흑인	혼혈	
2014-15	53명(추정)(84%)	2명(추정)(3%)	3명(추정)(5%)	5명(추정)(8%)	63명
2015-16	79명(88%)	6명(7%)	1명(1%)	0	86명
2016-17	106명(88%)	4명(3%)	7명(6%)	4(3%)	121명
2017-18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62명
2018-19	161명(86%)	7명(4%)	13명(7%)	6명(3%)	187명
2019-20	188명(88%)	8명(4%)	8명(4%)	9명(4%)	213명
2020-21	226명(88%)	9명(4%)	8명(3%)	10명(4%)	257명

<출처: 세종아카데미 연례보고서>

세종아카데미의 교사 및 지원교사 규모 역시 증가하여 2022년 현재 48명인데, 그중 이민 2세, 입양아 출신 등 한국계가 2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다수가 카렌족이므로 그들의 학습을 돕는 카렌족 지원교사도 5명을 두고 있으며, 백인 12명, 백인과 한국계 혼혈 3명, 히스패닉 1명을 포함하고 있다.<sup>32)</sup> 행정직원은 7명인데 그중 한국계 2명, 카렌족 2명, 백인 2명, 기타 1명이다. 교사 인원과 학생 인원을 종합하여 살펴보자면, 한국계 교사가 카렌족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일상의 교실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몰입 교육 비중을 보면, 유치원과 1학년 과정은 100%, 2학년과 3학년 과정은 80%, 4학년 과정은 50%를 차지하고, 5학년 이후 과정에는 한국어가 몰입 형태가 아닌 별도의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규 과정인 유치원부터 12학년 과정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으나 별도의 과정인 어린이집(Pre K)과정은 매달 400불의 등록금을 받고 있

31) 세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www.sejongacademy.org/>)에 있는 연례보고서와 기타 자료를 참고했다. 2014-15학년도에는 학생수 비중만 나와 있어 추정된 숫자이다. 2017-18학년도의 연례보고서는 홈페이지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수 합계만을 파악했다.

32) 세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민 활동가이자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던 박사진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으며 영어를 기본 교육 언어, 한국어를 보조 언어로 쓰고 있다. 특수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카렌족 지원교사 2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카렌족 학부모 당사자도 학교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르윈이었다. 소르윈은 태국 매솟에서 이주민 학교인 사틀레(Hsa Thoo Lei) 학교<sup>33)</sup>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 재정착한 뒤에는 이민국 관련 기관에서 재정착 난민들의 적응을 돕는 일을 했다. 그 일을 하던 중 같은 기관에서 일하던 한 한국계 인사가 소르윈의 경험과 근무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어 몰입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참여하게 됐다.<sup>34)</sup> 소르윈은 학교의 의사결정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한 학교를 대표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District Advisory Committee)에까지도 참여했다.

세종아카데미는 카렌족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뉴스레터와 학부모 알림장을 카렌어로도 번역하고 있다. 아래는 2021년 10-11월호 뉴스레터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Parent-Teacher Conference Meals

Each year at conferences, we provide a meal for teachers and staff to grab in between meetings with parents. We've been doing cup noodles over the past couple years (at the request of a few teachers) but this time we pitched in with the school to do a bigger Korean meal cooked by Ms. Youngie Kim, an EA at Sejong. We heard that Ms. Kim's cooking was much tastier than instant ramen! Shout out to Ms. Kim!

**မိဘမိတ်းကိသရ်ကိမိတ်သ့တဖ်အတာအိဉ်**

ကိးမိတ်နိဉ်ဒီးလၢတၢ်ထံဉ်လိာ်အိဉ်သကိးန့ဉ်, ပကတိဟံဝဲဒဉ်တၢ်အိဉ်တဆဲးတက့ၢ်လၢကိသရ်သရ်မုဉ်တဖ်ဒီးပုၤမၤသကိးတၢ်ကိးဂၤဒီးလၢအဝဲသ့ဉ်ကဟံးန့ဉ်ဒဉ်မိတ်ထံဉ်လိာ်အိဉ်သကိးသးဒီးမိပါအဘၢဉ်စၢၤဆၢကတိၢ်န့ဉ်လိာ်လၢအပူၤကိသရ်ပမၤဝဲဒဉ်မိတ်အပူၤသ့တဖ်ဒီးလၢတၢ်ယုၤထီဉ်ဝဲဒဉ်လၢကိသရ်သ့တဖ်န့ဉ်လိာ်. တၢ်ဆၢသန့ကတဘျီညါအိၤပမၤသကိးတၢ်ဒီးကိးမိတ်ဒီးမၤဝဲဒဉ်ခိရ်ယါတၢ်အိဉ်လၢဘၢတၢ်မိတ်အိၤလၢMs.YoungieKim, EA.န့ဉ်ဟ့ၣ်ဘၢလၢms.Kimမိတ်အိဉ်တၢ်န့ဉ်ဘဲဒိဉ်န့ဉ်ဒီးမိတ်ပူၤတက့ၢ်လိာ်. ပစံးဘျီဘၢms.Kimဒိဉ်မၤလိာ်.

학생회 임원도 대부분 카렌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33) 사틀레 학교는 이주민 교육에 대한 내 연구(Lee 2014)의 주요 현상이었다. 그 연구의 주요 정보제공원이었던 포레이(Paw Ray)가 소르윈의 처가 가족이다.  
34) 소르윈과 면담(2018년 5월 16일).

2019-20학년도의 학생회 임원 5명 모두 카렌족이었다. 카렌족 학생은 일부는 부모와 함께 재정착한 1.5세대인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도 있다. 카렌족 학생이 많다 보니 빈랑(betel nut)을 씹고 땅바닥에 뱉는 행태도 잦아 2019년 10월 학교 위원회 모임에서는 빈랑 씹기를 아예 금지하고 만약 걸리면 한국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는 조치까지 내리기도 했다. 학교가 그렇게 반응할 정도까지 카렌족의 문화를 육화하고 있으면서도 카렌족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자체 클럽 활동을 통해 태권도, 전통춤, K팝 댄스, 추석과 설맞이 놀이, 김치 담그기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왜 카렌족 학부모는 주변에 다른 공립학교도 있는데 왜 자녀들을 세종아카데미에 보내고 있을까? 우선 카렌족에게 한국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카렌족이 난민촌에 있을 때 한국인 선교사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잊지 못해 이곳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sup>35)</sup>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난민촌 시절 방문했던 한국인들에 대해 이들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 기억으로 인해 이들은 당초에 한국계 교육 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또한 세종아카데미가 홈페이지에 내세우듯이 국제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가 카렌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배울 가치와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소수자로서 주류 학교에서 겪게 될 낙오와 주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즉 선주민 백인계가 주류인 학교에 다니면 이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차별과 냉대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자기 딸을 세종아카데미에 보내는 학부모이기도 한 소르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3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검색일: 2022.03.15).



주류 학교에 가면 주류 문화에 대해서만 배우고, 소수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세종아카데미에서는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sup>36)</sup>

위의 언급은 오미와 위난트(Omi and Winant 2014)가 언급한 미국 사회 인종질서가 카렌족의 교육 기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낸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거주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인종질서가 교육에도 반영된 것이다. 카렌족이 세종아카데미에서 받는 교육은 포르테스와 조우(Portes and Zhou 1993)가 언급한 분절된 동화의 관점에서, 즉 이민 2세대들이 상향의 사회적 이동도 하향의 사회적 이동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주류에 통합되되 문화적으로는 출신지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카렌족은 주류 교육 기관에서 상향의 이동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학교 밖 청소년 처지인 하향의 이동도 아닌 대안의 세종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적응해나간다는 점에서 포르테스와 조우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수자 문화가 아닌 다른 배경의 소수자 문화와 가치를 배운다는 점에서 그 관점과 차이가 있다. 소수자와 또 다른 소수자 사이의 연대는 분절된 동화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자 위계화된 주류사회의 인종질서를 극복하려는 소수자의 출구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종아카데미는 8학년(중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8년 5월 12-24일, 2019년 5월 12-24일에 각각 11명과 2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한국을 찾았다. 그 방문단에서 한국인 인솔자 한 명과 백인 영어 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카렌족이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

---

36) 소르윈과 면담(2018년 5월 12일).

나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했고 향후 그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연세대 방문, 코엑스 방문, 민속촌 방문, 한국 고등학교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하며 한국 문화와 교육기관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이들은 한국 체류 기간 중 주로 한국에 재정착한 카렌족 난민 가정<sup>37)</sup>에 흠어져 머물렀다. 그렇게 머물면서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우애를 다졌다. 그러던 중 미국 카렌족과 한국 카렌족 사이에 애정이 싹터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예도 있었다. 세종아카데미와 한국이 양국 카렌족 사이에 우정과 사랑의 교두보를 놓은 셈이다. 달리 말하여 그 친밀감은 카렌-한국-미국이 연계된 삼각의 초국적 연대와 교류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례는 본국과 거주국 사이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 초국주의 논의(Basch et al. 1994; Levitt and Schiller 2004; Myers and Nelson 2019; Suter 2021; Vertovec 1999)의 공간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례이다.

## VI. 결론

이 연구는 미국의 난민 수용 제도와 미얀마 카렌족 난민의 삼각 초국주의 실천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서 외교 전략과 인도주의 정책을 결부시키는 계산된 친절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있다(Keles 2008). 엘루노 등 미얀마 카렌족 난민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신국 중 최다수를 차지하며 미국에 들어온 것도 미국 정부의 전략적 관심 대상인 P-2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들에게 미국은 새로운 시공

37) 한국 정부(법무부)는 2015-2017년에 카렌족 16가족 86명을 재정착시켰다. 이들은 현재 인천 부평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간에서 삶을 재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부 카렌족 난민에게는 미국 정부가 신화 속의 백인 구원자의 도래로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이다(이상국 2010). 하지만 머프티(Muftee 2015)가 언급하듯이 오늘날 재정착 난민 수용은 백인의 책임(white man's burden)이 투영된, 제3세계 출신 난민들을 새로운 주체로 구성하려는 포스트식민주의 작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그 작업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결합하여 민관협력 체계라는 틀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난민 수용 및 정착에 관한 기본 기조를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Volag이라는 엔지오가 국가를 대리하여 난민들을 입국시키고 지역사회에 배치하여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개입한다. 이른 자립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Volag은 국가의 예산을 활용하여 난민들의 과거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 노동 시장에서 낮은 단계의 일자리로 난민들을 떠밀어 넣는다. 대로우(Darrow 2018)가 언급하듯이 난민들은 Volag과 맺은 비자유 행정계약 아래에서 순응과 반항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민관협력 체계는 미국 특유의 캔두이즘과 결합하여 난민들을 앞으로 내밀며 도전 정신을 갖고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자아를 구성하여 버젓한 아메리칸이 되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러한 압력을 받고 살아가되 난민들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오늘날의 자아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으로 삼는다. 토시치와 팔름버거(Tošić and Palmberger 2016)가 언급하듯이 이주는 난민/이주자에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초국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초국적 관계망 만들기 효과 중에서 카렌족과 한국인이 맺었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난민촌 시절에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엘투노, 케

이포 등 카렌족 난민들은 미국에서 적응해나가면서도 그때 그 시절의 한국인을 찾으며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엘루뇨의 경우 미국에서 구성해나가는 자아 정체성은 DNA 테스트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드러나듯이 카렌-아메리칸이 아니라 카렌-코리안-아메리칸이라는 삼중의 혼종 정체성이다.

카렌족이 미국에서 연결하는 끈은 기존의 초국주의 논의(예 Basch et al. 1994)가 주로 다룬 본국과 거주국 사이에만 해당하는 직선의 끈이 아니라 한국이 관련된 삼각 모양의 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삼각의 관계는 한국인의 방문으로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한인 마트 이용 등 일상의 여러 계기를 통해 되새겨진다. 그러한 삼각의 초국주의는 난민들에게 정서의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미와 위난트(Omi and Winant 2014)가 언급한 미국의 인종적 위계질서를 헤쳐나가는 데 하나의 출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강력한 인종질서 아래 카렌족 난민은 주류 사회에 깊이 편입되지 못하고 프레이저(Frazier 2016)가 언급한 대로 분리된 집거지를 중심으로 생활세계를 구축해나간다. 하지만 세종아카데미의 사례가 제시하듯이 비주류인 한국계가 마련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자-소수자 연대는 기존 인종질서의 틈을 파고들며 확장해내는 공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카렌족은 미국 사회의 인종질서 상층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공생의 영역에서 난민촌, 한국, 미국이 연계된 초국적 생활세계를 구축하며 미국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경로의 통합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 참고문헌

- 오영철. 2020. 『카렌! 그들을 통해 배우다』. 서울: 요단출판사.
- 이상국. 2010. “백인 구원자와 카렌족: 현실이 된 카렌족 신화.” 『한국문화인류학』 43(1): 217-261.
- \_\_\_\_\_. 2014. “울고, 웃고, 넘나드는 국경살이: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과 모바일 참여관찰.” 전제성 편, 『맨발의 학자들: 동남아 전문가 6인의 도전과 열정의 현지조사』. 서울: 놀민. 409-475.
- \_\_\_\_\_. 2021. “노동과 노르웨이를 넘어서: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의 통합과 초국적 모빌리티.” 『동남아시아연구』 31(4): 43-82.
- 자우너, 미셸. 정혜윤 역. 2022. 『H마트에서 울다』. 파주: 문학동네.
- Basch, Linda, Nina Glick Schiller and Cristina Szanton Blan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Amsterdam: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 Bernstein, Hamutal and Nicole DuBois. 2018. “Bringing Evidence to the Refugee Integration Debate.” Research Report. Urban Institute.
- Bose, Pablo S. 2016. “Challenging Homogeneity: Refugees in a Changing Vermont.” Morgan Poteet and Shiva Nourpanah (eds), *After the Flight: The Dynamics of Refugee Settlement and Integration*.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28-253.
- \_\_\_\_\_. 2018. “Welcome and Hope, Fear, and Loathing: The Politics of Refugee Resettlement in Vermon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4(3): 320-329.

- Brown, Anastasia and Todd Scribner. 2014. "Unfulfilled Promises, Future Possibilities: The Refugee Resettl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2(2): 101-120.
- Creet, Julia. 2011. "Introduction: The Migration of Memory and Memories of Migration." Julia Creet and Andreas Kitzmann (eds), *Memory and Migration: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emory Studi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3-26.
- Darrow, Jessica H. 2018. "Administrative Indentureship and Administrative Inclusion: Structured Limit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for Refugee Client Inclusion in Resettlement Policy Implementation." *Social Service Review* 92(1): 36-68.
- Frazier, John W. 2016. "Racial Geography vs. Ethnic Geography: A Distinction." John W. Frazier, Eugene L. Tettey-Fio and Norah F. Henry (eds.), *Race, Ethnicity, and Place in a Changing America*.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5-45.
- Gordon, Milton Myron.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Mark, Julia Gelatt, Jessica Bolter, Essey Workie and Isabelle Charo. 2018. "Promoting Refugee Integration in Challenging Times: The Potential of Two-Generation Strategi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arkins, Benjamin. 2012. "Beyond 'Temporary Shelter': A Case

- Study of Karen Refugee Resettlement in St. Paul, Minnesota.”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10(2): 184-203.
- Kallick, David Dyssegaard and Silva Mathema. 2016. “Refugee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Keles, Fethi. 2008. “The Structural Negligence of US Refugee Resettlement Policy.” *Anthropology News* May 2008.
- Lee, Sang Kook. 2014. “Migrant Schools in the Thailand-Burma Borderland: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4(1): 125-138.
-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Li, Wei. 2010. “U.S. Immigration and Racialized Assimilation.” John W. Frazier, Eugene L. Tettey-Fio and Norah F. Henry (eds.), *Race, Ethnicity, and Place in a Changing America*.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57-66.
- Mathema, Silva and Sofia Carratala. 2020. “Rebuilding the U.S. Refugee Program for the 21st Century: A New Vision to Create a More Resilient Refugee Program.”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Muftee, Mehek. 2015. “Resettlement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Encounters within Swedish Cultural Orientation Programmes.” Brigitte Suter and Karin Magnusson (eds.), *Resettled and Connected? Social Networks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Resettled Refugees*. Malmö: Malmö University. 213-241.
- Myers, Quintin Wo and Kyle Anne Nelson. 2019. “I Should Not

- Forget!': Qualitative Evidence of Social and Cultural Transnationalism among Refugees Who Are Disconnected from Home." *Ethnic and Racial Studies* 42(7): 1204-1221.
- Naw Hsar Ka Nyaw Htoo Simon. 2020. *Papa: A Memoir of a Hero and a Mentor for the Illegal Displaced People*, Rev. Dr. Saw Simon. Bloomington: iUniverse.
- Nawyn, Stephanie J. 2010. "Institutional Structures of Opportunity in Refugee Resettlement: Gender, Race/Ethnicity, and Refugee NGO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7(1): 149-167.
- New American Economy. 2017. "From Struggle to Resilience: The Economic Impact of Refugees in America." Report June 2017.
- Omi, Michael and Howard Winant. 2014.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 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0(1): 74-96.
- Sarkar, Sucharita. 2019. "Food, Memory and Everyday Transnationalism in Chitrita Banerji's Culinary Memoirs." *Post Scriptum: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iterary Studies* 4(2): 232-247.
- Sienkiewicz, Holly C. and Tracy Nichols. 2016. "The Spatial Interactions of Multi-Ethnic Refugees Residing within a North Carolina Settlement." Morgan Poteet and Shiva Nourpanah (eds.), *After the Flight: The Dynamics of Refugee Settlement and Integration*.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 Scholars Publishing. 156-182.
- Singer, Audrey and Jill H. Wilson. 2006. "From 'There' to 'Here': Refugee Resettlement in Metropolitan America." Metropolitan Policy Program. The Brookings Institution.
- Suter, Brigitte. 2021.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ime and Space: Integration Processes of Burmese Karen Resettled Refugees in Sweden." *Journal of Refugee Studies* 34(1): 700-717.
- Tošić, Jelena and Monika Palmberger. 2016. "Introduction: Memories on the Move- Experiencing Mobility, Rethinking the Past." Monica Palmberger and Jelena Tošić (eds.), *Memories on the Move: Experiencing Mobility, Rethinking the Past*. London: Palgrave Macmillan. 1-16.
- Van Selm, Joanne. 2003.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Refugee Resettlement: Europe and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4(2): 157-175.
- Vertovec, Steven. 1999.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447-462.
- \_\_\_\_\_. 2009. *Trans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자료>

-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통계 자료
- 세종아카데미(Sejong Academy) 연례보고서
-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ORR). 각호. Annual Report to Congress.
- US Government(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각호.

Proposed Refugee Admissions.

<웹사이트>

<https://2001-2009.state.gov/r/pa/ei/pix/b/prm/108175.htm>

(검색일: 2022.04.10)

<https://m.yna.co.kr/amp/view/AKR20141008070700009>

(검색일: 2022.06.15)

<https://rsq.unhcr.org/> (검색일: 2022.04.05)

<https://web.archive.org/web/20200724063942/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minnesota/articles/2019-08-31/jobs-housing-lure-karen-refugees-to-spread-across-minnesota?context=amp>

(검색일: 2022.06.1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0/2014101000128.html) (검색일: 2022.03.15)

<https://www.mprnews.org/story/2019/08/13/lured-by-jobs-and-housing-karen-refugees-spread-across-minnesota>(검색일: 2022.08.10).

<https://www.nytimes.com/2008/08/08/world/asia/08myanmar.html> (검색일: 2022.04.10)

<https://www.sejongacademy.org/> (검색일: 2022.03.15)

<https://www.tcdailyplanet.net/minnesota-s-first-korean-immersion-school-may-benefit-adoptees/> (검색일: 2022.06.10)

<https://www.wrapsnet.org/rp-agency-contacts/> (검색일: 2022.04.13)

(2022.06.30. 투고, 2022.07.07. 심사, 2022.08.02. 게재확정)

<Abstract>

## Karen-Korean-American: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 Program and the Practice of Triangular Transnationalism of Myanmar Karen Refugees

Sang Kook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 Program and the practice of triangular transnationalism of Myanmar Karen refugees. The United States accepts refugees based on the principle of calculated kindness, and und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NGOs intervene on behalf of the state in the refugee adaptation process. Refugees are under pressure to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and to create new subjects for the future, but they adapt to American society through transnational relationships centering around community and memory. The triangular transnational relationship that includes the home country,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Korea(n) not only provides refugees with emotional stability, but also provides an outlet for navigating the racial order in American society. Minority-minority solidarity in the educational arena initiated by Koreans in participation of the Karen demonstrates how the symbiotic relationship penetrates into and destabilizes, to a certain degree, the existing racial order, and creates

and expands a common ground. This study reveals that building upon the symbiotic relationship, the Karen people are pursuing the integration of another path beyond the United States and practicing triangular transnationalism where the refugee camp,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interconnected.

**Key Words:** US Refugee Admission Program, Volag, NGO, Transnationalism, Myanmar, Karen, Resettlement, Refugees